10일 올 첫 전국학력평가…입시 레이스 시작

고3 시기별 대입 전략

6월 모의평가까지 실력 진단

9월 학생부 분석·수시 지원

10월부터 실전 연습 돌입을

■ 고3 수능 대비 일정

※ 수능 11월17일

3월10일	전국 연합 학력평가
3월29일	수능 기본계획 발표
4월6일	전국 연합 학력평가
6월2일	모의평가
7월	수능 시행 공고
7월6일	전국 연합 학력평가
8월 중순	수능 원서 교부·접수
9월1일	모의평가
10월11일	전국 학력평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오는 10일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겨울방학 동안 다져왔던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입시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고3 학생들의 입시 레이스가 시작됐다. 한국사 필수 응시, 국어 A/B형 통합 등 굵직한 변화가 있는 수능 시험(11월 17일)을 앞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입시의 첫 단추'로 불리는 전국연합학력평가(10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에 들어가게 된다.

광주·전남 교육청과 입시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시기별 주요 일정 및 대입 전략을 살펴본다.

◇10일 전국연합학력평가, 6월 2일 첫 모의평가=오는 10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지는 전국 연합 학력평가는겨울방학 동안 다져왔던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인 만큼 의미가 크다. 광주·전남 지입의 경우 광주 55개 고교 3학년 1만9080명이 응시하고 전남에서는 98개 고교 1·2·3학년 5만1572명이 시험을 치른다.

특히 통합된 국어 과목, '가','나'형 등 계열별로 바뀐 수학, 처음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등 지난해와 달라진 여러 입시제도가 반영되는 첫 시험이라는 점에서 '입시의 첫 단추'로 불린다.

고3 학생들이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이외 4월 6일, 7월 6일, 10월 11일 각각 경기·인천·서울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다.

6월 2일 첫 모의평가도 중요하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모의평가로 재수생들이 합류하면서 더욱 정확하게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9일 '2017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과 '6월 모의평가' 일정 및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시험에 부담을 갖거나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면서 "3·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졸업생들까지 참여하는 6월 모·평을 통해 상반기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모의고사를 치르는 사이 사이에 예정된 학교별로 중간·기말고사도 소홀히해선 안 된다. 올해 수시 선발 인원이 확대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은 더욱 높아졌다. 당장, 2017학년도에는 전체 모집인원의 18%인 5만9069명(정원 내 기준)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방학 그리고 9월 모의평가=9월 1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시 접수를 앞둔 상황에서 본 수능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데다,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를 가늠해보고 재수생 대부분이 응시해 객관적인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9월 모의평가가 8월 방학이 끝난 뒤 치러지는 만큼 방학을 잘 활용하는 게 수험생들에겐 더없이 중요하다.

이 시기 대학별 학교생활기록부 산출 방법에 따라 유불리를 분석하고 자기소개서와 각종 서류, 대학별 고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시전문가들은 강조한다.

10월부터는 수능 실전 연습에 들어가 주 1회 정도 수능과 똑같은 조건으로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사, 올 수능 필수 과목

국어·수학 수준별 시험 없어져

EBS 교재 수능 연계율 70%

가장 큰 변화는 한국사 시험이 필수로 포함되는 것이다. 한국사 시험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치러지게 되며 문항 수는 20개, 만점은 50점. 성적은 다른 영역과 달리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으로 제공된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문항을 일부 출제했던 기존 형식 대신, 학습 부담이 없는 평이한 문제로 바뀌면서 부담은 적지만 많은 대학이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및 정시에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적용해 대학별 한국사 반영 방법을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국어·수학 영역에서의 수준별 시험도 사라져 국어는 공통으로, 수학은 문·이과에 따라 나/가형 시험으로 치러지게 된다.

내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교재 연계율도 70%로 유지된다. 다만, 연계교재 수는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밝힌 2017학년도 수능-EBS 연계교재 유형은 현행 '수능특강, 수능완성, 인터넷 특강' 3가지에서 '수능특강, 수능완성' 2가지로 간소화됐다. 국어 영역 교재의 경우 선택형 수능이 폐지되면서 A·B형 8종에서 A·B형 구분 없이 4종으로 단일화됐다. 수학 영역 교재도 A, B형 8종에서 나, 가형 7종으로 바뀌고 영어 영역 교재는 5종에서 4종으로 줄었다. 한글 해석본을 외워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어 영역에서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는 문제도 출제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국제전기화학회 총회

광주과기원 8~11일

GIST(광주과학기술원)는 8일부터 11일까지 오룡관에서 '2016 국제전기화학회 춘계총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국제전기화학회는 지난 1949년 전기과학 기술 증진과 국가 간 전기화학산업 교류를 위해 설립된 스위스 소재 과학 단체다. 이번 총회에는 25개국 과학 및 대체에너지 관련 연구자 300여 명이 참석해 친환경 연료전지 등 최신 연구 성과를 다루고 소개할 예정이다.

서강석 호남대 총장(왼쪽 네번째)이 조리과학과 신입생들과 빵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호남대 제공〉

총장과 전공체험…조언은 '덤'이죠

호남대 신입생 '알짜 스쿨'

서강석 총장 스킨십 눈길

'항공기 승객이 됐다가 미술학과 모델로 나서는가 하면, 초코 머핀을 만드는 요리사까지….'

최근 부쩍 신입생들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는 호남대 서강석 총장 얘기다. 학생들과 접촉 기회가 많지 않은 대학 총장의 '이례적' 행보로 받아들여지면서 대학가 안팎의 눈길이 쏠린다.

서 총장은 지난달 29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호남대의 '10일짜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 '알짜 스쿨' 프로그램을 계기로 학생들과의 접촉을 크게 늘렸다.

알짜 스쿨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공체험은 서 총장이 신입생들과 어울리며 목소리를 듣는 데 적극 활용됐다. 의상디자인학과에서는 디자이너 실습생이 돼 전통매듭을 활용해 한(韓)패션 팔찌를 함께 만들더니 조리과학과 체험 시간에는 신입생 68명과 조리사 역할을 맡아 신입생 68명과 초코 머핀을 만들었다. 바리스타(식품영양학과)가 돼 카푸치노를 만들어 나눠주는가 하면, 기내 승객 역할을 맡아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고 모델로 미술학과 신입생들 앞에 서기도 했다. 박상철 부총장도 호텔경영학과에서 바텐더로 나서 무알콜 칵테일 제조에 나서기도 했다.

거리가 느껴졌던 총장과 여러 체험을 하며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알짜스쿨 프로그램도 막연하게 느꼈던 학과와 전공을 알고 남은 대학생활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알짜 스쿨은 대학측이 1억원 가까운 비용을 들이며 공을 들인 프로그램으로, 대학 및 학과 ·동아리 소개, 진로 설계, 대학공부법 안내 등 신입생들의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총정리 프로그램'이다. 신입생들이 허투루 대학 생활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생 위해…대학 교수도 '취업 스터디'

동강대 취업교육 워크숍

대학가의 최대 화두는 '취업'이다. 캠퍼스마다 취업 열기로 뜨겁다. 학생들은 최악의 취업난을 뚫기 위해 학점을 비롯, 어학성적·자격증·공모전 수상 경력·봉사활동·인턴경력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스펙 쌓기에 열중이다. 학생만 그럴까. 교수에게도 남의 일은 아니다.

동강대(총장 김동옥)가 최근 진행한 교내 학술정보원에서 진행한 '취업 및 진로교육 워크숍'은 취업 지원 사격에 나서는 대학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보건행정학부를 비롯, 쇼핑몰디자인창업과, 호텔조리영양학부, 사회복지과, 응급구조과, 부사관과 등 학생들 취업과 밀접한 학과 교수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은 급변하는 취업 시장에서 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지도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전공과 연계된 최신 취업 트렌드를 시작으로 회사에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요령과 건설·유통·신문방송·금융 등 업계별 면접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유하는가 하면, 구인정보와 기업별 정보 활용법을 익히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수법을 교환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취업 특강과 해외 채용박람회까지 마련하는 것 외에 교수들을 통한 취업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동강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취업·진로 교육을 위한 워크숍으로 다양한 교수법과 취업 활용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NPL매입 ●NPL매도 ●NPL중개 ●NPL질권대출 ●경락잔금대출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 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의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낙잔금 대출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